

한중 FTA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경제연구실 허문종 수석연구원 moonjong.huh@woorifg.com

한국과 중국간의 FTA 협상이 지난 11월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실질적인 타결'에 이르렀다. 중국 내수시장의 빠른 성장과 한중간의 높은 교역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이번 FTA는 공산품 및 서비스 수출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에 따른 산업별 영향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화학 제품·고급소비재의 수혜가 예상되며, IT·철강은 중립적이고, 농업·섬유는 피해가 예상된다.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조업보다는 오히려 서비스업과 전자상거래 등에서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FTA에 따른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향후 한중간 제조업 기술격차 축소, 중국의 경제구조 전환,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 사이에서의 역학관계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과 중국간의 FTA 협상이 지난 11월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실질적인 타결'에 도달

- 한중 두 정상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타결을 공식 발표
 - 2004년 9월 양국 통상장관의 민간공동연구 개시 합의로 논의가 시작된 한중 FTA는 산관학 공동연구(2007~2010년)와 14차에 걸친 협상(2012년 5월~2014년 11월)을 거쳐, 2014년 11월 양국정상회담을 통해 최종타결을 선언
 - * 정식 발효까지는 가서명, 공식서명, 국회 비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음
 - 한중 FTA는 한국으로서는 13번째 FTA이고 올해 들어 호주(4월), 캐나다(9월)에 이어 세 번째 FTA 서명이 체결되는 것

한중 FTA 추진과정

일자	주요 내용
2004년 9월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 합의
2006년 11월	FTA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 추진 합의
2007년 3월~2008년 6월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1~5차 회의
2011년 4월	한중 통상장관회담
2012년 2월	한중 FTA 공청회
2012년 5월	한중 FTA 협상개시 선언
2012년 5월~2014년 11월	제1차~제14차 협상
2014년 11월 10일	한중 FTA 실질적 타결 선언 (APEC 회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교역국 가운데 미국, EU, 중국 등 글로벌 3대 경제권 모두와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이자, 경제영토 역시 전세계의 73.2%까지 확대
 - 한국의 對中 교역비중은 2013년 말 기준 21.3%로 EU(9.8%)와 미국(9.6%)을 크게 앞서고 있어 한중 FTA는 우리 수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

한국의 FTA 체결 현황

상태	국가/단체	협상 개시	협정 발표	주요 특징
발효 (9건)	칠레	1999-12-14	2004-04-01	한국의 첫번째 FTA
	싱가포르	2004-01-27	2006-03-02	
	EFTA	2005-01-18	2006-09-01	지역블록 대상 첫번째 FTA, EU FTA 협상을 위한 기반
	ASEAN	2005-02-23	2007-06-01	
	인도	2006-03-23	2010-01-01	중국, 일본보다 앞선 FTA 체결
	EU	2008-05-07	2011-07-01	아시아 국가 최초로 EU와 FTA 체결
	페루	2009-03-16	2011-08-01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 확보
	미국	2006-06-05	2012-03-15	
	터키	2010-04-26	2013-05-01	
서명/타결 (5건)	콜롬비아	2009-12-07		2013년 2월 공식 서명
	호주	2009-05-19		2014년 4월 공식 서명
	캐나다	2005-07-28		2014년 9월 공식 서명
	중국	2012-05-04		2014년 11월 실질적 타결 선언
	뉴질랜드	2009-06-08		2014년 11월 타결 선언
협상진행 (4건)	베트남	2012-09-03		2014년 10월 7차 협상까지 진행
	한중일	2013-03-26		2014년 9월 5차 협상까지 진행
	RCEP	2013-05-09		2014년 3월 4차 협상까지 진행
	인도네시아	2012-07-12		2014년 2월 7차 협상까지 진행
잠정중단	GCC	2008-07-09		2009년 7월 3차 협상 진행 이후 잠정 중단
	멕시코	2007-12-05		2008년 6월 2차 협상 진행 이후 잠정 중단
	일본	2003-12-22		2012년 6월 3차 과장급 협의 이후 잠정 중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이번 FTA의 개방 정도는 기존 한미 FTA나 한EU FTA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나, 교역 규모를 고려할 때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
 - 이번 FTA는 주요 수출품 관세철폐를 통한 공세적 이익 확대보다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세적 우려를 완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측면에서 기존 FTA와는 차별적
 - 한중 FTA가 최종적으로 달성되는 시점에 연간 관세 절감액은 54.4억 달러로 한미 FTA(9.3억달러)의 5.8배, 한EU FTA(13.8억달러)의 3.9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품목 구분

	협정내용	한국 양허품목	중국 양허품목
일반품목군	10년 내 관세철폐	품목수 79%(9,690개) 수입액 77%(623억달러)	품목수 71%(5,846개) 수입액 66% (1,104억달러)
민감품목군	20년 내 관세철폐	품목수 92%(11,272개) 수입액 91%(736억달러)	품목수 91%(7,428개) 수입액 77%(1,417억달러)
초민감품목군	양허에서 제외 보완장치 마련	쌀, 고추, 마늘, 배추, 사과 등 주요 농수축산물 등	자동차, 파라자일렌, 텔레프탈산 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중국 내수시장의 빠른 성장, 중국과의 높은 교역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이번 FTA는 공산품 및 서비스 수출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제고에 기여할 전망

- 2015년경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을 우리의 제2의 내수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선점함으로써 경쟁국들을 제치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 관세 철폐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공산품 수출의 가격경쟁력 제고로 연결될 수 있고,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는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
- 중국 지방정부 규제를 비롯한 비관세장벽이 해소되면 국내 기업들이 기존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간재·자본재 수출도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향후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對中 소비재 비중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나, 소비재 비중이 일정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중간재와 자본재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 관세율 인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중 FTA가 발효되고 5년후 실질GDP가 0.92~1.25% 증가하고, 10년후 2.28~3.04%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중 FTA에 따른 산업별 영향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화학제품·고급소비재의 수혜가 예상되며, IT·철강은 중립적이고, 농업·섬유 등은 피해가 예상됨

- 對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 중에서는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의 수혜가 예상되며, 가전제품, 화장품 등 고급소비재에 대한 수출 확대도 예상
 - 對中 수출에서 석유화학제품(45%)과 석유제품(18%)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합성수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5.5~6.5%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 품목에 대한 수혜가 예상
 - * 다만 중국 자급률 상승, 경쟁 격화, 수요 둔화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 중국의 소득 수준 향상과 내수 확대 정책으로 고가 가전제품 및 화장품, 패션, 스포츠·레저, 영유아용품 등 고급소비재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

* 對中 수출에서 차지하는 소비재 비중은 3%대로 낮지만, 관세율은 중간재·자본재 대비 높기(화장품 6.5~10%) 때문에 관세철폐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전망

품목별 對중국 수출입 금액 및 비중 (2013년)

(단위: 억달러, %)

품목명	수출금액	비중	수입금액	비중
전자전기제품	703.0	48.2	339.5	40.9
화학공업제품	282.1	19.3	96.4	11.6
기계류	227.7	15.6	84.8	10.2
광산물	87.1	6.0	22.7	2.7
철강금속제품	76.4	5.2	121.8	14.7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34.8	2.4	15.5	1.9
섬유류	27.3	1.9	63.2	7.6
농림수산물	11.5	0.8	46.8	5.6
생활용품	7.4	0.5	37.0	4.5
잡제품	1.3	0.1	2.7	0.3
총계	1,458.7	100.0	830.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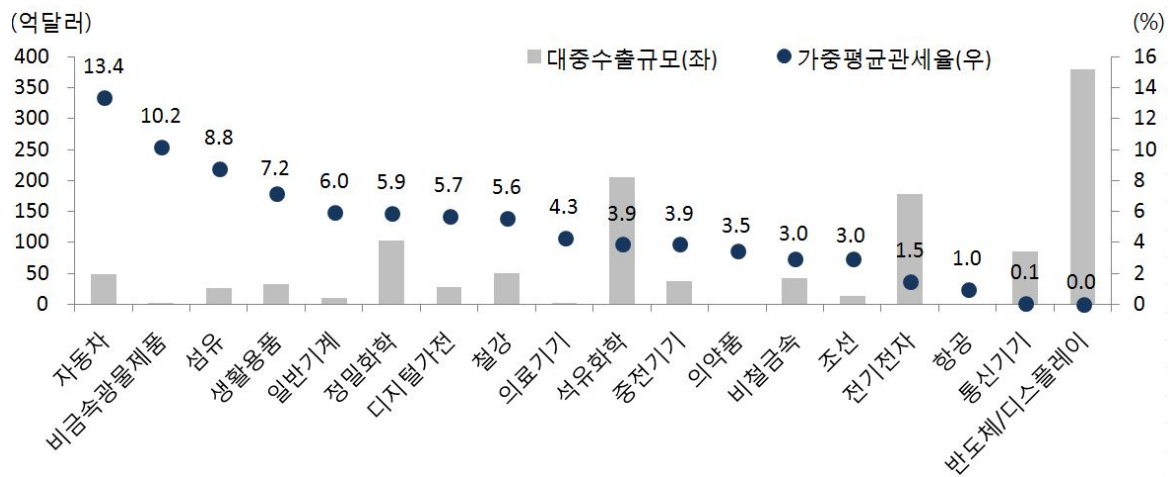
주: MTI 1단위 기준

자료: 무역협회

- 對中 수출 비중이 높은 IT제품의 수혜는 제한적이며, 철강·일반기계·건설 등에 대한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IT제품은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지만, 현지 생산 비중이 높거나 이미 관세율이 낮아서 FTA에 따른 추가 수혜가 제한적
 - *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IT제품의 경우 가공무역에 포함되어 중국 내에서 이미 우대세율을 적용 받고 있음
 - 철강은 수출이 관세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고급강 중심이고, 수입은 한국측 관세 민감도가 큰 저가제품이 주력이기 때문에 영향이 중립 내지 부정적
 - 일반기계도 가공무역에 포함되어 있어 기존 관세율이 높지 않아 FTA에 따른 효과가 중립적이며, 자동차는 처음부터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중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약한 농수산물, 섬유·의복, 가구, 생활용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하락과 수익성 악화가 예상
 - 이번 FTA는 농수산물 양허대상 제외품목을 크게 확대하는 등 국내 농수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미 중국산 저가제품 수입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추가 관세율 인하로 관련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

- 섬유·의복의 경우 고가 제품은 손해가 예상되나, 중저가 브랜드 및 국내 SPA 브랜드는 중국산 저가제품과의 경쟁에서 피해가 예상
- 가구, 생활용품도 이미 중국산 제품의 국내 수입이 많이 되고 있으나, 중국산 저가제품 수입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피해가 예상
- * 한국의 생활용품(MTI 1단위, 가구 포함) 수입 비중(2013년)은 1위 중국 71.6억달러(51.6%), 2위 베트남 6.1억달러(8.5%)로 중국이 압도적

한국의 품목별 對中 수출 규모 및 관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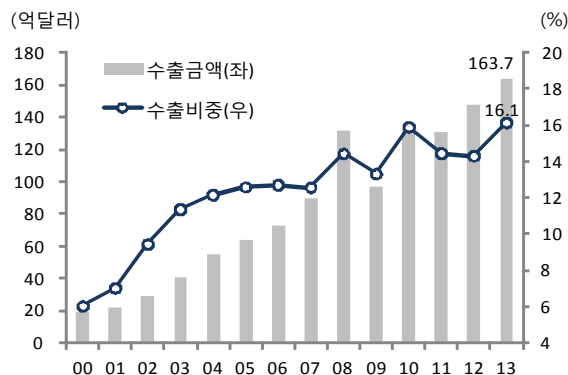


주: 2012년 기준
자료: 산업연구원

■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조업보다는 오히려 서비스업과 전자상거래 등에서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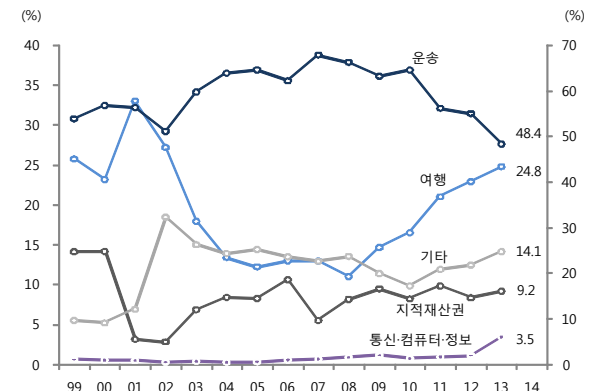
- 비자 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가 추진되고 서비스와 투자분야의 문호가 개방됨에 따라, 양국간의 인적·물적자본 교류가 확대되고 경제 연결고리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
 - 중국은 법률·건설·유통·환경·엔터테인먼트 등 분야에서 ‘포지티브 방식’에 따른 서비스시장 개방 및 투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규정하되, 이후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개방, 미개방분야 열거)에 따라 후속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
 - 양국의 서비스업 개방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요우커) 증가와 함께, 중국계 자금의 한국 금융시장 및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 국내 여행업계는 중국 내 합자방식을 통한 중국 관광객 취급업무가 가능해질 전망
 -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해 영화·드라마·음악·게임 등 콘텐츠분야의 시장 확대가 예상되며, 중국 내 한류붐과 함께 다른 산업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가 예상

對中 서비스수출 금액 및 비중 추이



주: 전체 서비스수출에서 對中 서비스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은행

분야별 對中 서비스수출 비중 추이



주: 1) 전체 對中 서비스수출에서 각 분야 비중
2) 기타는 가공·보험·사업·정부 서비스 등 포함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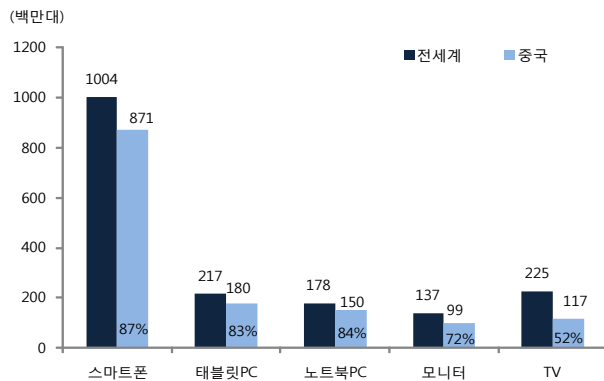
- 전자상거래에 관한 내용이 이번 FTA에 포함됨으로써,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국내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
 - 중국의 경우 FTA 최초로 전자상거래를 독립 챕터로 추가했으며,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
 - 중국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3년 기준 10.2조 위안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인터넷쇼핑은 2.7조 위안으로 세계 최대
 -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7년 21.6조원으로 2013년 대비 두 배가 예상되며, 인터넷 이용자는 8.5억명(13년 6.3억명),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인터넷 이용자는 7.5억명(13년 5.0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iResearch)
 - 중국 소매판매시장에서 전자상거래 비중이 빠르게 늘면서, 패션·화장품·액세서리·문화콘텐츠·아동 등 고급소비재를 중심으로 한국 제품의 중국 내수시장 공략이 좀 더 용이해질 전망이며, 이에 따른 온라인 중심의 유통업체 판도 변화도 예상

■ 한중 FTA의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지만, 향후 한중간 제조업 기술격차 축소, 중국의 경제구조 전환,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 사이에서의 역학관계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

- 한중간 제조업 기술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어 한중 FTA에 의한 긍정적 효과가 향후 반감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
 - 한중간 기술격차 축소에 의한 중국 내 자체 생산능력 강화는 올해 한국의 對中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구조화될 가능성
 - 한중 FTA가 실제로 발효되는 시점에서의 한중간 기술격차는 현재보다 더욱 좁혀져 있을 것이며, 제조업 및 GDP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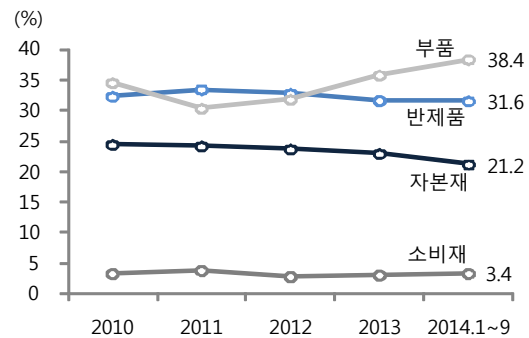
- *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중국의 자체 생산능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확대(그림 참고)
- 이러한 중장기적인 변화를 고려, 현재 3%대에 불과한 對中 소비재 수출 비중을 점차 확대하기 위한 고급소비재 등의 수출 확대 전략이 필요

중국의 디스플레이 생산규모 및 비중



자료: Display Search, 무역협회 재인용

가공단계별 對中 수출 비중 추이



자료: 무역협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을 국내 서비스업 수출 확대를 위한 계기로 활용하는 동시에, 중국 자본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 내수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
 - 한류붐이 중심이 되고 있는 문화산업의 경우 고부가가치 산업인 동시에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향후 국내 신성장산업으로 유망
 - 서로를 견제할 목적으로 경제블록화를 시도하고 있는 미국(TPP¹⁾ 주도)과 중국(RCEP, FTAAP 주도) 사이에서 한국 경제를 위한 전략적인 선택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정부는 FTAAP 자체가 TPP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닌 이를 포괄하는 큰 틀의 다자 FTA인 만큼 한중 FTA, RCEP, TPP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FTAAP로 나아가야 한다는 견해
 - 하지만 여러 FTA가 중첩되면서 야기될 수 있는 ‘스파게티볼 효과’로 부작용이 확대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
- *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 여러 국가와 동시에 FTA를 체결함으로써 각 나라의 다른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거래비용 절감이 애초 기대보다 반감되는 현상. 이 같은 현상을 접시 속에 얹히고설킨 스파게티에 비유한 용어

1)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우 높은 수준의 FTA를 추구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ASEAN 10개국과 ASEAN이 FTA를 체결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광역 FTA로 자유화 수준은 다소 유연

FTAAP(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APEC 21개국간의 FTA를 통한 경제블록 형성